

세계 참여불교인 하나로

하르샤 INEB 의장... "한국의 불교국 지원 신중해 달라"

세계참여불교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INEB) 대표단이 7월 24-27일 한국의 참여불교 단체를 방문했다. 하르샤(HARSHAR) INEB 의장과 무(MOO) INEB 사무총장은 26일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실에서 재가연대 임원 및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르샤 INEB의장(사진)은 "세계에는 여러 이슈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 스트리트가 붕괴되면 전세계의 경제가 붕괴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경제인들의 만남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세계인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하르샤 의장은 "지금의 세계 경제체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세계의 자원 소비에 대해 불교가 어떤 해답을 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참여불교단체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서로 배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 여기 온 첫째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지성인·지식인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참여불교활동에 아시아 불자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르샤 의장은 "아시아 참여불교 운동에서 한국 일본 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전개 등에 한국 불교계의 협력·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스님들 돈 많은 것으로 안다. 큰 절을 짓고, 여자들과 함께 다니고, 관광하는 모습에 순수불자사회인 동남아 불교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동남아 불교 국가들에 행하는 원조 성격의 지원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동섭 기자

"인도 고려사 지켜달라"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인도 비하르주 수상 연담

한 승려의 잘못된 욕망으로 사라질 뻔한 인도 부다가야 고려사가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노력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름사는 7월 27일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인도 부다가야에 위치한 고려사의 정상화를 위해 인도현지법인인 한국불교회를 정비하고 비하르주(인도의 행정단위 지자체) 수상 니피쉬 꾸마르를 만담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우 스님은 통도사 주지 재임시 절부터 부처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국불교를 상징해온 고려사의 땅의 2/3가 개인(김종철)이 사문서 위조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삼보정체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 발빠른 대응을 해왔다.

현재 김종철은 한국 경찰의 조사를 마친 상태로 검찰(대구지검)에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미



현지의 힌디어 신문도 정우 스님의 주지사 면담을 대서특필하는 등 고려사 문제에 관심이 크다

제3자에게 넘어간 땅을 되찾기는 현지 사정으로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정우 스님은 현지의 주 수상과 대한민국 인도 대사관 등을 방문해 인도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려사의 위상을 설명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부다가야 고려사와 바라나시 녹야원, 마날리의 설산사 등을 관리하는 현지법인인 '한국불교회' 이 사문을 정비하고, 이사회를 통해 인도의 3개 사찰 모두를 통도사 공찰로 등록하기로 결의했다.

구름사는 "비하르주 수상과 대한민국의 인도주재 대사 등이 고려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연등회의 매력은 '다양한 콘텐츠'



봉축위, '연등회 외국인 모니터링 조사연구' 발간

외국인들이 느끼는 연등회의 가장 큰 매력이 '축제의 다양한 콘텐츠'로 꼽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는 최근 <연등회 외국인 모니터링 조사연구>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올해 연등행렬은 토요일, 불교문화마당은 일요일로 양일간에 걸쳐 나눠 치러진 연등회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등회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등(燈)과 거리 프로그램

램 및 남녀노소 등을 아우르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QR코드 등을 이용한 축제안내 서비스와 축제공간의 질서 유지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한국문화 홍보에 사찰음식을 활용하자는 내용과 TV타운엔터테인먼트를 제작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은 교환학생 등 올해 연등행렬은 토요일, 불교문화마당은 일요일로 양일간에 걸쳐 나눠 치러진 연등회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등회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등(燈)과 거리 프로그램

조동섭 기자

100년 만의 폭우에 사찰도 큰 피해

7월 26~28일 서울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사찰도 큰 피해를 입었다.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성사와 천태종 관문사, 불교TV 사옥을 비롯해 6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소요산 자재암에서는 보타전 앞 1m까지 축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조계종은 중단 소속 사찰에 수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하달한 데 이어, 사회부를 통해 사찰의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02)2011-1820-5

조계종은 "28일 현재까지 정릉 봉곡사, 광명 금강정사, 도봉산 천축사 등이 축대가 붕괴되거나 토사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8일 불교TV 사옥과 소요산 자재암에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파견했다. 조동섭·천진영 기자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우면산 기슭의 천태종 관문사에는 1층부터 지하4층까지 토사가 쌓였다. 사진은 관문사 사부대중이 도랑에 유입된 토사를 치우며 복구에 한창인 모습이다. (사진제공=금강신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

자기가 쓴 보고서 심사

문화재청의 매장(埋藏) 분과 문화재위원회 위원 11명 중 7명이 건설사가 의뢰한 문화재 지표조사용 용역업체 이사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용역업체 '이사' 신분으로 보고서를 만든 뒤 '문화재위원' 신분으로 그 보고서에 허가 결정을 내린 사람이 문화재위원의 63%를 차지했다는 얘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규정을 어긴 문화재위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지난 4월 위원을 다시 뽑을 때 해당 위원들은 선정되지 않았다"면서 "지적된 위원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사찰분담금 현실화 된다

최저 2.1%~최고 5%

조계종 사찰의 예결산 규모에 맞춰 분담금이 현실화된다. 또, 선학회 대가회 등 법인분담금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포교당과 산내암자의 분담금 징수 조항이 신설된다.

조계종 총무원(위원장 자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본사 21개·말사 32개 등급에 따라 1~4%로 구분 책정된 분담금을 30개 등급

2.1%~5%로 통합 조정했다. 예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찰은 3%의 이상의 분담금을 책정토록 했다.

총무원이 교구발사까지 분담금을 책정·배정하던 것을 분담금위원회가 정한 중앙분담금 총액을 교구본사에 일괄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직영사찰 분담금은 재무부장이 직접 총무원회에 상정하던 것을 분담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신설된 포교당과 산내암자의 분담금 부과는 교구별 분담금위원회를 통해 말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중단 화합 기원대법회 봉행

총무원장 탄핵 등 내용을 겪어온 태고종이 중단화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8월 2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중단발전과 종도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관계자는 "이번 법회는 총무원장 4년 단임제와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 등 주요현안을 통과시킨 제106회 임시중앙총회를 계기로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총정혜초 스님의 팔순을 축하하는 산수연 법회와 함께 치러졌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머뭇거리면...

만남의 칠석에서 보냄의 백중까지!
생사참구 生死參究 정진
 8월 6일 토요일 - 8월 14일 일요일 (9일간)
 잘 살아 왔는가? 지금까지 -
 잘 살아 가는가? 지금여기 -
 잘 살아 가야지! 지금부터 -
 우리 열린선원에서는 생명의 탄생과 장수를 기원하는 칠석과, 선친의 보은과 천도를 기원하는 백중 사이 9일간을 생과 사의 한가운데서 생과 사의 의미를 탐구하는 특별정진 기간으로 정해서 뜻 깊은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칠석날은 칠성기도와 함께 동국대 명예교수인 목정배 박사님께 견우지녀의 애뜻한 사랑이야기와 칠성기도의 인연에 대해 듣고 나머지 8일간은 8정도의 가르침에 생사참구 정진하는 날로 삼으며, 백중날에는 무상 법현스님의 생사참구 회향법문과 추선공양을 통해 조상님의 보은과 추선공양을 기리도록 하였습니다.
 복잡하게 흘러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현실생활 속에서, 태어남과 늙어감과 괴로움에 대하여, 죽음이란 필연적인 일대사에 대하여, 참구하고 명상하며 살펴보는 가운데, 생사인연 생사의미 생사가치 찾으소서.
 ◆ 8월 6일 오후 4시: 칠석법회 - 목정배 교수님 초청강연 (만남의 오만가지 인연)
 ◆ 8월 14일 오후 4시: 백중법회 - 법현스님 특별주제 법문 (팔정도로 본 생사참구)
 ◆ 8월 7일 ~ 13일(7일간) 매일 오전 11시 - 법현스님 지도 (팔정도로 본 생사참구)
 ◆ 문의 및 접수: ☎ 02)386-4755
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법현 합장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채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과가 준비되어 있다.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법패·작법무-
불교예술평대학
 ◆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진행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1년 9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